

제공일자	2013. 11. 6(수)	담당자	기승도 박사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02-3775-9051)	연락처	02-3775-9042 010-7223-5795
			총4매

제목 :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시장참여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원화 운영방안을 제시
-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천만원까지)은 규제담보로 간주하여 보험료 결정에 시장참여자(정책당국, 시민단체, 보험회사 및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현재보다 다소 강화
- 규제담보 이외의 담보는 자율담보로 간주하여 보험회사들이 자유로운 상품개발, 상품수준에 부합한 요율수준 및 요율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

- 보험연구원은 7일(목) 오후 3시 중소기업회관 제2대연회실에서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실시된 이후에도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이 반복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 이날 “자동차보험 이원화 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제 발표 이후 김성태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언론계, 학계,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이원화 운영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자동차보험 자유화 확대 또는 이원화 운영 필요

- 자동차보험은 2000년 초를 기점으로 이전의 관리요율제에서 자유요율제로 운영구조(제도)가 변함.
 - 관리요율제도 시절에는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는 시각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 상품 및 요율구조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 관리되었음.
 - 그러나 1990년대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세계화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운영구조는 형식적 측면에서 자유화의 모습을 갖추.
- 민영보험이라는 입장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은 자동차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있어, 2000년 이후 일정한 주기를 두고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대통령의 지시로 자동차보험 정상화대책 지시, 2010년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개입 등이 있었음.
 - 자동차보험 시장은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이와 같이 정책당국의 개입으로 시장이 악화되고 안정되는 현상이 반복됨.
-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운영구조를 현재보다 더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원화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자동차보험을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구분하고, 규제담보는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가입한도 1천만원)으로 하고, 자율담보는 규제담보 이외의 담보로 함.
- 규제담보는 요율구조, 상품내용을 단순화, 그리고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요율수준 결정은 시장참여자(정책당국, 시민단체, 학계, 보험회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자율담보는 현재 자유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요율구조,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 결정에 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함.

□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싸고 반복되어 발생하는 갈등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이원화 운영방안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다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표 1>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 방안

구분	사고/담보의 종류	운영주체	상품내용	요율구조/상품내용
규제담보	대인배상 I	회사	고의제외 모든 사고	모두동일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 이하)			
자율담보	대인배상 II	회사	회사자율	회사자율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 초과)			
	자기신체			
	자기차량			
	가해자불명 (뺑소니 등)			

<표 2>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 방안

구분	사고/담보의 종류	요율수준	가입 한도	이익(손실) 원칙
규제 담보	대인배상Ⅰ (사망/부상/후장)	회사별 차이 허용	1억원/2천 만원/1억원	- 규제담보 경험손해율에 근거 한 요율조정 또는 No-Loss, No-Profit 원칙에 부합한 요율 조정 - 정부보장사업 : No Loss, No Profit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 이하)		1천만원	
자율 담보	대인배상Ⅱ	회사자율	자율	회사책임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 초과)			
	자기신체		축소(차량 단독사망)	
	자기차량		자율	
	가해자불명 (뺑소니 등)			

<표 3> 자동차보험 운영구조 개편 방안

구분	사고/담보의 종류	요율요소	요율조정	요율수준
규제 담보	대인배상 (사망/부상/후장)	제한 (단순화)	제한 (여론반영)	회사별 차이 (예정손해율 수준 요율결정)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 이하)			
자율 담보	대인배상 II	회사자율	자율	회사별차이
	대물배상 (가입한도 1000만원 초과)			
	자기신체			
	자기차량			
	가해자불명 (뺑소니 등)			

<별첨>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